

# 어려움 겪는 장애학생 학생도우미 모집 효과적인 홍보와 구성원 협조 필요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 학기 모집 중인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를 가치로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매 학기 순탄치 않은 모집 과정을 겪어왔다. 우리 신문은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의 실태와 어려움을 짚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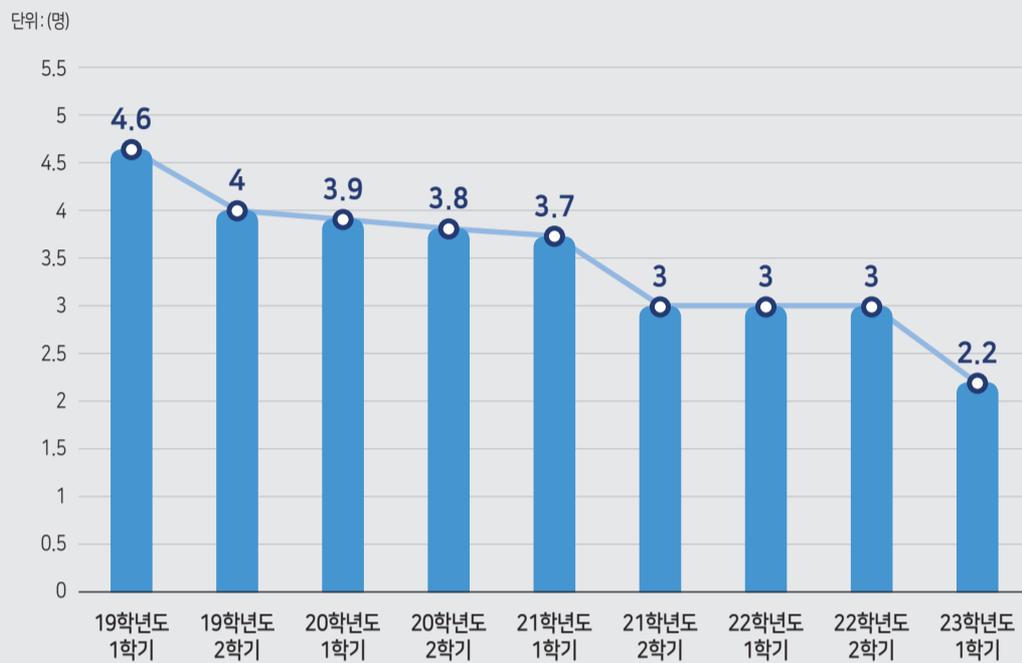
## 해마다 감소하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각각 45명, 32명이다. 이들 중 학습 도움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에 한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장애학생의 수업에 함께 출석해 대필과 통역, 과제물 보조 등을 수행하며 장애학생의 수업을 돕고 있다. 올해는 5명의 장애학생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신청했고, 이를 지원한 인원은 11명이다.

양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한 사람당 학습도우미 지원자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학년도 1학기의 장애학생 한 명당 학습도우미 지원자 수는 약 4.6명이다. 그러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약 3.9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2021학년도 2학기에는 3명으로 또 다시 감소했다. 그리고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장애학생 한 명당 학습도우미 지원자는 2.2명이 됐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은 개강 한 달여 전부터 시작돼 개강 전까지 모집 완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매 학기 모집 연장과 추가 연장을 거듭하며 지원자를 모집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최문선 행정실장은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이 수월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혼합된 경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로 활동했던 학생들에게 또 다시 지원을 부탁하는 경우도

## 장애학생 한 명당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 수



※ 총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 수 ÷ 학습 도움을 신청한 장애학생 수

장애학생 한 명당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 부족은 단순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장애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학습의 질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이 휴학 또는 졸업할 경우 학습도우미 자원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자원의 순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의 선발 요건으로 '성실하고 봉사 마인드가 있는 학생'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모집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 자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가려내는 것은 욕심에 가깝다. 최 행정실장은 "학습도우미 선발 시 선발 지침을 마련하거나 지원자 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 절차 없이 바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 모집 홍보 방식은 여전히 숙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주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우리 학교의 공식 알림 애플리케이션인 '경희톡'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유입 인원이 적어 공지글의 조회수가 적은 탓이다. 또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 협조를 얻어 학습도우미가 필요한 과목의 수강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홍보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 안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이번 학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로 활동 중인 박수빈(소프트웨어융합학 2019) 씨 역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 어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주변 지인들 역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라는 활동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홍보를 진행한다면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평소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김선진(미디어학

2021) 씨는 "장애 학우를 돕는다는 취지도 의미 있지만, 혜택이나 장학금 제도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 받는다면 지원을 고민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더했다.

매끄럽지 못한 모집 홍보 과정 역시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이번 학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모집 중에는 모집 안내 문자를 재학생들의 연락처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교내 연락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연락처로 발송돼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교내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의 캡처본을 게시하며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알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늦은 시간 학교의 번호가 아닌 특정인의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학습도우미 모집을 위해 해당 과목의 각 단과대학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각 단과대학에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신 번호가 개인 연락처로 발송된 점을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해당 문제와 연관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학습도우미의 더 나은 활동 위한 협력 필요해

우리학교가 장애 학생을 비롯해 그들을 돕는 학습도우미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학교 구성원들 역시 그들에게 얼마만큼 마음의 여유를 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다. 김예린(환경조경디자인학 2017) 씨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시작해 7학기 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그런 김 씨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으로 주변의 시선을 꼽기도 했다. 김 씨는 "강의실에서 타자를 치는 소리 때문에 타 수강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의 지원자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학습 지원 대부분이 강의 내용 속기인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교수님 말씀, 학생 발표, 조별 회의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다"며 노동 강도에 적응이 필요했음을 털어놨다. 박 씨 또한 "다른 국가 근로에 비해 근로 강도가 매우 힘든 편"이라며 "교수님 수업에 완벽하게 집중해 교수님이 하는 농담까지 전부 대필해야 하므로 수업이 끝난 후 손가락이 뭉치 아프거나 녹초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최저시급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활동비가 적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완벽하게 대필하지 못한다면 장애학생들이 동일한 수업 질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국제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국고 사업의 일환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지원 일반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 휴학 상태인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휴학 중일 시 활동 혜택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 행정실장은 "해당 국고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정산 보고 과정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고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인 만큼,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